

사회

추락·교통사고·재해 등 위급환자 전담 치료

광주·전남등 16곳에 중증외상센터

2016년까지 2000억 투자... 전국 대형병원 대상 공모

추락사고나 교통사고 및 재해 등으로 인해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치료할 '중증외상센터'가 광주와 전남·북 등 전국에 마련된다.

중증외상센터는 교통사고·추락사고 등에 따른 다발성 골절·출혈 환자를 병인 도착 즉시 응급수술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외상전문 치료센터다.

계획대로 중증외상센터 설치가 완료되면 전국에 약 650개(1개 센터당 40~50개)의 전용 병상이 마련되고, 연간 약 2만명의 중증외상환자 치료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증외상센터 이송되는 환자 기준은?

6m 높이서 추락·車體에 깔린 보행자...

중증외상센터는 각종 교통사고, 추락사고, 총상 등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를 살려내는 역할을 한다. 보건복지부는 5년간 2000억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중증외상센터 설치 계획을 세우면서 미국 등의 사례를 토대로 자체적인 환자이송 기준과 응급환자 대처 매뉴얼 등도 개발했다.

터 튕겨나갔다면 중증외상센터 이송 대상이다. 이 밖에 보행자는 차에 치여 튕겨져나가거나 차체에 깔린 경우 중증외상 환자로 분류된다.



단군대제 봉행 단기 4344년 개천절인 3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여의산 자유공원 단성전에서 (사)국조송모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단군대제가 봉행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 의료기관 71개 '경영난'

건강보험 급여비 216억 압류

하루 평균 14곳의 병의원이나 약국이 폐업하는 등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각해지면서 건강보험급여비마저 압류당하는 곳이 급증하고 있다.

도 8월 말 기준 1062개소에 이르렀다. 총 3780억원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30개 기관(압류액 738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46개 기관·부산 114개 기관·경남 109개 기관 순이었다.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29분 해질 18시 13분 달돋이 13시 34분 달질 23시 53분

안갯길 '안전 운전'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including Gwangju, Jeonnam, and Jeonbuk. Columns include location, weather type, and temperature.

Table with tide information for the East and West Seas, including high/low tide times and directions.

Table with daily weather forecasts for the next 10 days,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and weather icons.

독거 노인 대상 한방상담서비스

광주 소방본부 21일까지 인 건강체크에 나설 예정이다. 4일부터 7일까지는 서구, 10일부터 14일까지는 동구, 17일부터 21일까지는 광산구를 차례로 방문하며, 지난달 이미 실시한 남구와 북구는 제외됐다.

Advertisement for domestic insurance (국제보청기) featuring a knight on a horse and text about hearing aids and insurance services.

Advertisement for solar power installation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 건설 신청 접수) with details on subsidies and costs.

Advertisement for MY-MO hair salon (MY-MO 심는가발 마이모) featuring a '390,000 won' sale and a testimonial.